



「미술관에 간 할머니」 리딩가이드

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에피소드에 체크 표시를 하고, 각 파트 완독 시 할머니 스탬프를 쿡-찍어 보세요.

1. 아침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미술관

- ☐ 그림으로 살인죄마저 용서받은 역대급 화가
- ☐ 천재 화가를 파산시킨 치명적인 역작
- ☐ 두 눈이 멀어도 그 빛만은 그리고 싶었지
- ☐ 모두가 아는 르누아르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
- ☐ 세기의 명작에 자꾸만 등장하는 이상한 나무의 정체
- ☐ 평범한 직장인이 그림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?
- 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
- ☐ 세상에서 가장 절박했던 화판



2. 역사책보다 더 눈이 트이는 미술관

- ☐ 슬픈 "생쥐들"을 위한 작은 시
- ☐ 알고 보면 파리 상류층에게 꽤나 위험했던 그림
- ☐ 그 유명한 명화가 하마터면 찢어질 뻔했다고?
- ☐ 늙은 유명들이 하객이 된 기묘한 결혼식
- ☐ 그림 한 장으로 추락해버린 사교계의 여왕
- ☐ 100년 동안 그림에서 지워져야만 했던 남자
- ☐ 모두가 침묵할 때, 흑백이 외쳤다
- ☐ 확대할수록 수상한 디테일이 보이는 그림?
- ☐ 지나치게 아름다워
이상한 의심을 받은 화가



3. 연애소설보다 더 가슴 뛰는 미술관

- ☐ 폭풍우 속 도망치는 연인에 얹힌 은밀한 진실
- ☐ 모두가 외면했기에 누구보다 따스했던
- ☐ 아무 말 없어도 대답이 들려오는 그림
- ☐ "전애인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?"
- ☐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고 비웃음을 당한 남자
- ☐ 아내를 300번 넘게 그린 사랑꾼의 찻찻한 비밀
- ☐ 바람난 남자친구 때문에 그림을 그만둔 화가
- ☐ 얼핏 보면 키스 장면이지만, 멀리서 보면 ...
- ☐ 감히 이 사랑을 그릴 수 있었던
단 한 사람



4. 차 한잔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는 미술관

- ☐ 바구니를 들고 기웃거리던 그 아주머니의 정체
- ☐ 때로는 이런 그림이 더 좋더라
- ☐ '이케야'는 그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
- ☐ 어느새 웃게 되는 그림 하나
- ☐ 어떤 순간에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
- ☐ 화가는 왜 평생토록 파란색을 좋아했을까?
- ☐ 200년 전 사람들과 단숨에 친구 되는 법
- ☐ 농장 밖으로 나간 76살 할머니의 기적



우리 똥강아지들이 살면서 힘들거나 슬플 때,
이 할머니와 함께 나눈 그림 이야기를 떠올려준다면 할머니는 그걸로 고맙고 더 바랄 것이 없단다.